

18세기 전반 燕行錄에 나타난 뒤엎힌 인식과 下民의 묘사*

윤재 환**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18세기 전반 연행록의 양상
- III. 청나라와 서양에 대한 형클어진 인식
- IV. 하민에 대한 시선
- V. 결론

【국문초록】

18세기 전반 자제군관 세 사람의 연행록을 통해 청나라와 서양에 대한 인식의 뒤엎힌 과 인간, 특히 下民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인식은 연행 시기나 연행 기간, 나이나 당색에 따른 공통점을 찾기 쉽지 않다. 청나라에 대한 기존 관념의 흔들림은 김창업에서 시작하여 이기지에게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이의봉에서 보수적으로 회귀한다. 반면 서양에 대한 관심은 김창업에게서부터 이의 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또 연행사절의 하층민이나 청나라에서 만난 평범 하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나타난다.

18세기 전반 세 사람의 연행록에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뒤엎혀 있다. 18세기가 시작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인식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 이 글은 2019년 5월 25일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에서 ‘동아시아 와 한국학 지식의 생산, 수용 및 해석’이라는 대주제 아래 고전문학 분과에서 ‘국경을 넘는 만남과 한국 한문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 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뒤엎힌 인식들이 연행이라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연행록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연행록 작자의 인식은 대체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층적이면서 개별적이라고 하는 연행록에서 적층된 것은 경험과 여정이고, 개별적인 것은 서술 기법, 묘사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그것 뿐이라면 연행록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된다. 쌓여가는 경험과 여정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서술 기법으로 그려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경험과 여정만 쌓인 것이라면 연행록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행록 연구가 보다 의미 있기 위해서는 개별 연행록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18세기(18th Century), 연행록(Records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Kim Changup's 『Nogajaeyeonhangilgi』), 李器之 『一菴燕記』(Lee Giji's 『Ilmyeongi』), 李義鳳 『北轅錄』(Lee Uibong's 『Bukwonnok』)

I. 서론

세계적으로 18세기는 역동의 시기였다. ‘위대한 백년’¹⁾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면서 근대적 인식으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18세기에 들면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긴장관계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과 청나라는 17세기의 남은 기간을 긴장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청나라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전성기를 열 무렵 조선도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되살려 다양

1) 이 용어는 한국 18세기학회에서 발간한 『위대한 백년 18세기-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태학사, 2007)』의 제목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면서, 두 나라의 긴장관계는 누그러들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청나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연행록에도 변화를 주어 18세기의 연행록은 이전 시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²⁾ 洪大容의 『湛軒燕記』가 나오면서 이런 양상이 선명해졌고, 박지원의 『熱河日記』가 나오면서 하나의 기풍이 되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의 연행록은 雜識나 紀事 형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청나라를 문명의 중심에 두거나 유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청나라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³⁾ 이런 모습이 홍대용 이후 계속된 北學派 계열 문인들의 연행록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연행록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의 연행록에 대한 평가와 연구자들의 시선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양상이 어느 한 순간 불현 듯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같은 연행록의 변화 조짐이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속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조짐에 주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8세기 연행록의 특징적인 모습을 청나라와 서양에 대한 인식의 뒤엎힘과 인간에 대한, 특히 下民⁴⁾에 대한 관심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을 새롭게 바라

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p.45.

3)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pp.81-83.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下民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으로, 兩班들이 그들 밖의 사람들을 낮게 일컫던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다 확대하여, 평민 이하 천민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에서 관직이나 사회적 특권을 갖지 못한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위치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公的이면서 私的이고, 積層的이면서 個別的인 연행록의 특성을 제고하여 이후 시기의 연행록을 연행록 서술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II. 18세기 전반 연행록의 양상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은 홍대용의 『湛軒燕記』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연행록을 말한다. 홍대용의 『湛軒燕記』를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앞 장에서 언급한 18세기 중반 이후 연행록의 특징이 『湛軒燕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서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홍대용의 『湛軒燕記』 이전,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은 1701년 姜萬澤의 『閒閒堂燕行錄』부터 1764년 金鍾正의 『瀋陽日錄』까지 모두 70편을 들 수 있다.⁵⁾ 그러나 이 숫자를 18세기 전반 연행록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⁶⁾

5) 이 숫자는 임기중의 『연행록 연구(일지사, 2002)』와 김현미의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해안, 2007)』, 弘華文의 『燕行錄全編(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에 나오는 내용을 수합정리한 뒤, 여기에 그간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이 숫자는 異本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연행록이라 보기 어려운 畫帖 등과 같은 자료는 생략한 것이다. 또 1726년 金日男에 의해 저술된 『金日男漂流記』와 1729년 尹道成에 의해 저술된 『尹道成漂流記』는 연행록이라기보다는 표류기이고, 1727년 동지사행의 副使 李世瑾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姜浩溥의 『桑蓬錄』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인 한문본을 어머니를 위해 한글로 옮긴 얼마 뒤 원본을 소실하여, 후손 姜在應이 한글본을 바탕으로 다시 한역한 분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 목록을 도표로 만들었으나 분량 문제로 인해 생략하였다.

6) 임기중의 『연행록 연구(일지사, 2002, p.11.)』에서 1637년부터 1912년까지 청나라로 간 연행이 모두 497회라고 한 것이나 최소자가 『18세기 연행록과 중국 사회(해안,

현재까지 확인된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70편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글 연행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재 전하고 있는 『老稼齋燕行日記』의 한글 연행록 3종 중 2종(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한문본과 별도로 제작되었을 수 있지만⁷⁾, 이 한글본을 金昌業이 직접 저술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또 姜浩溥의 『桑蓬錄』 한글본인 『상봉록』과 李義鳳의 『서원록』이 있지만, 『상봉록』은 연행 13년 후 姜浩溥가 어머니를 위해 한문본 『桑蓬錄』을 한글로 옮긴 것이고, 李義鳳의 『서원록』은 『北轅錄』의 번역본으로, 필사기를 볼 때 1769년 번역되어 『을병연행록』 이후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18세기 전반에 한글 연행록이 연행 도중 저술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또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은 詩 보다 文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양상은 이후로 가면서 점차 강해지는데, 散文化되어가는 문학 경향과 詩文의 酬唱과 경쟁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시대 상황, 그리고 風俗志와 地理志化 되어가는 연행록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전반까지의 연행록은 대부분 日記 혹은 日錄體여서, 이후 시기의 紀事나 雜識 같은 형식의 다양성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70편의 작가 중 李頤命과 李器之, 李正

2007, p.21)에서 청초부터 동치 말년(1874)까지 238년간 모두 474차례의 사행이 중국으로 갔으며, 전 시기 평균 매년 3.6회의 사행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이 모두 70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보다는 현재 발굴된 것이 이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 박지선,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 『어문연구』 제23집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p.214; 신호련, 「노가재 『연행일기』 국문본의 이본 고찰-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p.47.

臣과 李喆輔가 부자간이고, 金昌集과 金昌業, 趙文命과 趙顯命이 형제간이며, 俞拓基와 俞彦述이 족속간이다.⁸⁾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연행록이 積層的 성격의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연행에 오르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전 시기의 연행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는데, 앞선 시기 연행록의 작자가 자신의 族親일 경우 그 기록에 대한 검토가 더욱 세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선대 族親에 의해 저술된 연행록이 있을 경우 연행자는 그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로 韓祉, 李喆輔, 趙顯命, 俞彦述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친이나 형님 등의 子弟軍官으로 연행을 가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저술이 가능했다.⁹⁾ 18세기 중후반 작은아버지 洪櫓를 수행했던 洪大容의 『湛軒燕記』나 비슷한 시기 삼종형 朴明源을 수행했던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중에서도 자제군관의 저술이 보이는데, 1712년 謝恩正使인 金昌集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한 동생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와 1720년 告訢正使인 李頤命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한 아들 李器之의 『一菴燕記』, 1760년 연행사의 서장관인 李徽中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한 아들 李義鳳¹⁰⁾의 『北轅錄』을 들 수 있다.¹¹⁾

8)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p.47. 김현미는 여기에서 韓泰東과 韓祉를 부자간으로 보았는데, 韓泰東과 韓祉의 연행록인 『兩世燕行錄』의 경우 1682년 韓泰東의 연행과 1713년 韓祉의 연행 기록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祉의 연행록이 韓泰東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은 분명하지만, 韓泰東의 연행 시기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시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韓泰東과 韓祉를 부자간으로 정리하지 않고, 또 韓泰東의 연행록은 논외로 한다.

9) 연행의 子弟軍官에 대해서는 尹景喜의 「燕行과 子弟軍官」(『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1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0)에 자세히 나와 있어 참고가 된다.

10) 李義鳳의 초명은 李商鳳이다. 연행 갔을 때까지 개명하지 않아 『北轅錄』의 작자가

이 세 연행록은 작자가 자제군관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에서 저술된 것으로, 일반적인 사신들의 연행록과 비교해 분량이 길고 내용이 자세하며, 관심 영역이 넓다. 『老稼齋燕行日記』¹²⁾가 9권 6책, 『一菴燕記』가 5권 5책, 『北轅錄』이 5권 5책이다. 상당한 분량을 통해 연행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행록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一菴燕記』는 당시 정사였던 부친 李頤命의 『燕行雜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은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속에 보이는 연행록 서술 양상 변화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70편 중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던 자제군관의 연행록 『老稼齋燕行日記』와 『一菴燕記』, 『北轅錄』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Ⅲ. 청나라와 서양에 대한 형클어진 인식

18세기 전반 자제군관의 연행록 세 편은 이전까지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통적인 의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흔들림의 층위와

李商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 개명하여 李義鳳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글에서는 개명 후 이름인 李義鳳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 11) 18세기 전반의 연행록 중 1728년 謝恩兼陳奏使 沈壽賢의子弟軍官으로 수행한 아들 沈鎔의 『燕行錄』이 있지만, 이 연행록은 모두 59제 68수의 시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 12) 이 글에서 저본으로 삼은 『老稼齋燕行日記』의 표지 서명은 『稼齋燕行錄』으로, 每冊의 卷頭 書名은 『老稼齋燕行日記』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燕行日記』, 『老稼齋燕行錄』, 『稼齋燕行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권두 서명으로 쓰인 『老稼齋燕行日記』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양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이 흔들림을 18세기 전반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완고한 華夷觀과 對淸意識이 이 시기에 와서 조금씩 균열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老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나는 對淸意識의 변화는 1권에 있는 「山川風俗總錄」에서도 볼 수 있지만, 金昌業이 연행 도중 만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한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金昌業의 평가에는 민간의 정황과 함께 청나라 관리와 왕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 ① “지금 황태후는 황제의 친모가 아니다.” …… 이전에 듣기를 황제는 황태후를 정성껏 섬겼으며, 황태후도 현명하여 정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연전에 황제가 심양으로 나와 백두산을 보고자 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는데, 황태후가 병을 핑계로 황제를 불러 황제가 곧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황태후의 현명함과 황제의 순종함을 모두 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일찍이 친모자간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그 일이 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¹³⁾

- ② 이전에 듣기를 중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데다 근래에는 기강까지 없어서 모든 일을 뇌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또 그렇지 않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마음이 밝고 도량이 크며 잘못된 일은 비록 아주 능숙한 말솜씨로 꾸며도 믿지 않고, 옳은 일은 처음에 비록 오해했더라도 이치로 따지면 바로 의혹을 푼다. 이번 일로 보더라도 처음에는

1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4卷, 「正月 16日」, “今皇太后, 非皇帝親母. …… 曾聞皇帝事皇太后盡其道, 皇太后亦賢, 凡於政事, 多所輔益. 年前皇帝出往瀋陽, 欲見白頭山, 我國聞之, 正海擾, 皇太后稱有病, 召皇帝, 皇帝即歸. 惟此一事, 皇太后之通慧, 皇帝之承意順志, 皆可見矣. 以此嘗認爲親母子, 今聞此言, 其事尤不易矣.”

문서만 보고 오해하다가, 장원익의 말을 들은 뒤에는 바로 의혹을 풀어버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¹⁴⁾

- ㉓ 큰길 좌우에는 사이길이 많았고 종횡으로 통하였으며, 거리에는 수레와 말이 길을 매워 뚫고 지나가기 힘들었다. 말몰이꾼이 통을 지고 말 앞에서 가다가 한눈을 팔고 말을 붙들지 않아 말발굽이 점포에 닿아 떡이 모두 흩어졌으나, 가게 주인은 그릇만 거두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 사람을 부끄럽고 탄복하게 만들었다. 말몰이꾼을 매질하려 하자, 온 시장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였다.¹⁵⁾

인용한 글은 김창업이 북경에서 직접 겪은 것이다. ㉑은 김창업이 지금 청나라의 황태후가 황제의 친모가 아니라는 文奉先의 말을 듣고 황제와 황태후를 평가한 것이다. 김창업의 생각에 친모가 아니면서도 힘써 황제를 돕고, 친자가 아니면서도 황태후에게 순종하는 청나라 황제와 황태후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었다. ㉒는 方物移準 문서의 誤譯으로 생긴 문제를 漢學上通事 張遠翼이 뇌물이 아니라 使臣의 문서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내린 평가이다. 이 글에서 김창업은 청나라 관리들의 일처리 능력과 의식이 조선보다 뛰어나다고 했는데, 김창업의 이런 평가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수차례 반복된다. ㉓은 북경의 시장 거리에서 김창업이 겪은 일이다. 자신

1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4卷, 「正月 17日」, “嘗聞此國人多慾, 近來無紀綱, 百事皆以賄成, 今來見之, 亦不如此矣. 此國人心明量大, 非事則雖極有口辯, 以飾其辭, 亦無信聽之理, 是事則初雖誤認, 以理爭之, 旋即解惑. 雖以今番事觀之, 初則只見文書誤認, 而聞張遠翼言後, 卽爲解惑, 無少持難. 此等事, 亦非我國人所及處.”

1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4卷, 「正月 19日」, “大街左右, 亦多岐路, 縱橫相通, 街上車馬塞路, 難於穿去. 刷馬人趕載桶馬在前, 遊目不防, 馬蹄觸市上, 餅餌盡散, 其人只收其器, 不發一言, 令人愧服. 欲杖駭人, 一市人皆挽止.”

의 말물이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이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것은 가게 주인이 외국 사신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온 시장 사람들이 말물이꾼에 대한 매질을 만류했다는 것에서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김창업의 의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은 『一菴燕記』에서도 볼 수 있는데, 『一菴燕記』의 대부분에서 淸人을 높이고 漢人을 비판하고 있다.

④ 사신 일행이 떠난 후 나와 김덕삼이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려고 하였더니, 한인 주인 노파가 더없이 간악해서 갖은 수단을 다 써서 나가라고 재촉하였다. 마두들이 분개하여 따지려고 하였는데, 내가 그만두게 하고 마침내 나와 버렸다. 대체로 청인 가운데는 선량한 사람이 많은데, 한인들은 남녀 모두 교활하고 간사하였다.¹⁶⁾

⑤ 이곳 사람들은 절대 먼저 배에 타려고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면 도리어 물러서서 기다렸다가 배에 탄 사람이 적으면 그제야 배에 올랐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부들은 배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일제히 한꺼번에 배에 올랐으므로, 배 위에 채찍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것을 또한 막을 수 없었다. 단지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사람의 국량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중국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¹⁷⁾

16) 李器之, 『一菴燕記』 1卷, 「8月 26日」, “使行離發後, 余與金德三欲暫憩而行, 主姬漢女也, 奸惡無比. 百般督迫出去. 馬頭輩憤憤欲相詰, 余止之, 遂出. 大抵淸人多良善, 漢人則男女皆巧惡.”

17) 李器之, 『一菴燕記』 1卷, 「8月 29日」, “此處人則絕不爭先上船, 見他人上舟, 却退立俟, 人少始上舟. 而我國馬夫輩, 不計船之大小, 一並擁上, 船上皮鞭亂下, 亦不能禁. 只此一事, 人之局量大小懸絕, 我國之終古服事中國固也.”

㉔ 사람이 매우 순박하였다. 꾸밈이 적고 대체로 질박하였으며, 하는 말도 대체로 천진스러웠다. 대체로 청인은 질박한 자들이 많고 한인은 속이는 자들이 많다. 한인 가운데도 북경 사람은 그래도 너그럽고 후덕하지만, 남방 사람은 하나같이 잇속이 빨라 교묘하게 속인다. 문자를 아는 자는 속이는 것이 더욱 심하다. ……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남방의 군사로는 결코 북방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아마도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와 같은 때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⁸⁾

㉕는 爛泥堡에 뒤늦게 도착한 이기지가 점심 이후 잠깐 쉬었다 출발하려고 하자 소리 지르며 내쫓는 주인 한인 노파를 보고 쓴 글이다. 장사에 방해가 되기에 내쫓는 것이겠지만, 그 기세가 몹시 사나웠던 듯하다. 그런데 이기지는 이런 주인 노파의 모습을 漢人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는 연행 도중 곳곳에서 “그 스님은 매우 순박하고 진실하였는데, 그 또한 청인이기 때문이다.”¹⁹⁾라거나 “그 호인이 은근한 마음으로 작별하였는데, 마음이 매우 애뜻하였으니 이 사람도 청인이기 때문이다.”²⁰⁾라고 하면서 淸人을 純粹, 質朴하게 묘사하는 만큼 漢人을 奸巧하게 묘사했다. 이런 모습은 ㉕에서 더욱 확대된다. 배를 타기 위해 다투는 마부들의 모습과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고 기다리는 淸人들의 모습에서 이기지는 사람의 국량 차이를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중국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한다. 결국 ㉔, ㉕를 겪으면서 이

18) 李器之, 『一菴燕記』 4卷, 「11月 9日」, “爲人極純朴. 少文多質, 言語多天真. 大抵淸人多質, 漢人多詐. 漢人之中, 北京人猶寬厚, 南方人箇箇伶俐而巧詐. 知文字者, 其詐尤甚. …… 此後天下雖有事, 南方兵力, 決不能抗北人, 恐難再如元末明初也.”

19) 李器之, 『一菴燕記』 1卷, 「8月 27日」, “其僧甚純實, 亦淸人故也.”

20) 李器之, 『一菴燕記』 1卷, 「8月 28日」, “其胡慙慙作別, 意甚眷眷, 蓋亦淸人故也.”

기지는 ㉒을 통해 더 이상 청나라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흔히 말하는 對明義理나 復讎雪恥는 차치해 두더라도 小中華로 자부했던 조선인의 자부심조차 찾기 쉽지 않다.²¹⁾

그러나 이런 의식을 당대의 보편적인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이기치보다 40년이나 늦게 연행 갔던 李義鳳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인정·풍속, 또 그들에 대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다.

㉓ 거리에 도착하니 두 명의 거지 아이가 가게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양의 피로 몸을 바르고 한 아이는 숯가루를 얼굴에 발랐으니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 달라는 것을 반드시 주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계교가 또한 몹시 공교하였다.²²⁾

㉔ 수역에게 문어사가 사나운 나줄을 단속하지 않는 잘못을 꾸짖게 하고, 더하여 맞은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 상황을 말하니 저들이 제법 겁을 먹었지만 겉으로 큰소리치기를 “너희들이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들에게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이 구경하러 갔다가 마구 나는 돌에 다쳤으니 내가 심양에 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울분을 터뜨렸는데 내가 위로하기를, “병자년 남한 산성이 무너지던 날에 이미 이와 같은 곤경이 있을 줄을 알았다. 이제 개나 양 같은 놈들에게 또 무슨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²³⁾

21) 이런 모습은 혼례에서 親迎하는 청나라의 풍속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하는 등 禮法과 格式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一菴燕記』 2卷, 「9月 17日」, “中國婚娶, 雖村民亦行親迎, 不親迎則以爲大恥. 我國婚禮, 乃秦人之贅法也. 秦近戎狄, 故婚禮之乖謬, 如此矣. 我國冠喪祭禮, 舉皆倣古, 親迎則世罕行之. 今見此之人, 雖剃頭胡服, 而亦能行此禮, 甚可愧也.”)

22) 李義鳳, 『北轅錄』 5卷, 「2月 9日」, “至街有兩乞兒, 入鋪求食. 一以羊血塗其身, 一以炭末傅其面, 要得人憐, 有求必周也, 其爲計亦甚巧矣.”

[7]은 연행 도중 이의봉이 거리에서 만난 걸인 아이들에 대해 서술한 것인데, 걸인 아이를 바라보는 이의봉의 시선에는 어린 아이가 보여주는 간교함, 교활함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있다. 이의봉은 청나라에 대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의 의식은 [8]에서 확인 가능하다. [8]은 책문 바깥에서 청나라 갑군 및 상인들과 조선 연행사절의 下民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 이후의 상황이다. 싸움의 처리와 큰소리치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울분을 느끼는 연행사절단원들에게 한 이의봉의 이야기는 청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인식이 지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7]과 [8]을 이어 볼 때 이의봉이 여전히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18세기 전반 청나라를 바라보는 조선 연행사절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 수용과 부인의 두 관점이 뒤엎혀있다. 청나라를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大國으로 인식하거나 배우고 따라야 할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오랑캐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자제군관 세 사람의 연행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청나라에 대한 혼재된 의식은 조선 문인들에게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와 함께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을 통해 이전 시기까지 洋夷로 치부하며 도외시했던 서양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김창업의 『老稼齋燕行日

23) 李義鳳, 『北轅錄』 5卷, 「3月 17日」, “令首譯責門御史以不束悍卒之咎, 兼語被歐人垂死之狀, 彼頗愜恟, 而外爲大言曰, 爾們垂死人, 非緣被歐於我人. 吾之少子, 爲觀光去, 傷於亂石, 吾方馳通瀋陽云. 諸人皆憤甚, 余慰之曰, 丙子南漢下城之日, 已知有如此困境, 今於犬羊, 又何足較也. 諸人以爲然.”

記』에서는 서구와의 접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1713년 2월 9일의 기록으로 보아 天主堂에 가서 天主의 畫像과 渾天儀, 自鳴鐘을 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김창업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²⁴⁾ 조선의 연행사절이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한 것은 康熙연간(1662~1722) 이후였고, 이런 풍조는 雍正(1722~1735)·乾隆(1735~1795)연간까지 계속되었던 것²⁵⁾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와 洪大容의 언급²⁶⁾으로 볼 때 조선 연행사절의 天主堂 방문과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접촉은 김창업의 연행 반세기 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청나라에 대한 개방적인 시선과 그들의 文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던 김창업이 서양 과학기술이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김창업과 달리 이기지와 이의봉의 경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기지에 대해 북경의 천주당 4곳 중 南堂, 東堂과 北堂을 방문한 유일한 인물로 8차례 천주당을 방문

24) 천주당을 찾아간 김창업은 자명종이 울린 후 들리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악기를 보고 싶어 했으나 “역시 한번 보고 싶었으나, 요즈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쳤다.”고 하고 더 이상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6卷, 「2月 9日」, “鍾聲繼止, 東邊虹門內, 忽有一陣風聲, 如轉衆輪, 繼而樂作. 笙簫絲竹之聲, 不知自何處出, 律呂合度, 宮商成調. 通官輩云, 此中華之樂, 良久而止. 又出他聲, 其聲如朝參時所聽. 通官輩云, 此今之樂, 良久而止, 復出他聲, 其聲急促. 通官輩云, 此蒙古之樂, 亦良久而止. 樂聲既盡, 六板門皆自還閉, 此西洋國使臣徐日昇所作也. 蓋與朴得仁家沈香山, 其制雖異, 其機則同. 亦欲一見, 而聞近有禁, 故遂過之”)

25)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p.447.

26) 洪大容, 『湛軒書』, 外集 7卷, 「劉鮑問答」, “康熙以來, 東使赴燕, 或至堂求見, 則西人輒歡然引接, 使遍觀堂內異畫神像及奇器, 仍以洋產珍異饋之. 爲使者利其賄, 喜其異觀, 歲以爲常. 惟東俗驕傲尙夸詐, 待之多不以禮, 或受其饋而無以爲報. 又從行無識者, 往往吸烟唾涕於堂中, 摩弄器物, 以拂其潔性. 近年以來, 洋人益厭之, 求見必拒之, 見亦不以情接也.”

했고, 서양 선교사와 11차례 서신을 교환했다²⁷⁾고 했는데, 그만큼 이기지 않는 서양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㉑ 그중에 작은 비단에 먹을 칠하고 사람의 모습은 비워두어 음각으로 찍어낸 듯한 것이 있었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는데, 주려다가 도로 두며 매우 아끼고 주저하는 뜻이 보였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이것은 천모의 상인데, 함부로 대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천주의 가르침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행해진다면, 이 또한 여러분의 공이니, 천주의 화상이 유포된다고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세 사람 모두 내 말이 몹시 옳다고 하고 마침내 그림을 주었다.²⁸⁾

㉒ “우리들은 조선으로 가서 천주당을 짓고 천주의 가르침을 멀리까지 포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해로에 대해 물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 이들은 비록 특이한 사람들이지만 매우 고결하여 이곳의 오랑캐 풍속을 싫어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의 의관과 문물을 보고는 흠모하는 기색이 있었다. ……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올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다가 그 실상을 완전히 알아서 돌아간다면 또한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물어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는 뜻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간절하게 노정을 물으니 또한 난처하다.²⁹⁾

27)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p.454.

28) 李器之, 『一菴燕記』 3卷, 「9月 27日」, “其中小錦片塗黑, 而空人形, 若陰刻印本者然. 畫作女人抱子狀, 欲與而還置, 甚有吝惜意. 余問其故, 答此是天母之像, 若慢屑待之, 與受皆不好云. 余曰天主之教, 若行於東國, 是亦諸公之功, 天主之像, 流布何害. 三人皆以爲君言極是, 遂與之.”

29) 李器之, 『一菴燕記』 4卷, 「10月 28日」, “吾們欲出往朝鮮, 作天主堂, 使天主之教, 無遠不行, 可乎. 蓋問海路, 亦有意也. …… 蓋其人品雖詭異, 而甚高潔, 有厭

㉑를 볼 때 이기지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천주교에도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천주교의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㉒에서 이기지는 조선까지의 노정을 묻는 선교사들의 물음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지만 그것은 천주교의 조선 전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이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경우 조선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一菴燕記』를 보면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에 대한 구분 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개방적 수용 욕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경계라는 이중적 의식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봉의 경우 이기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의봉은 북경의 천주당 4곳 중 남당과 동당을 방문했는데³⁰⁾, 『北轅錄』 4권 1월 8일과 27일, 5권 2월 6일의 기록을 보면 그가 서양의 학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北轅錄』에 보이는 서양에 대한 이해와 천주당에 대한 묘사는 이기지 이후로 40년 동안 계속된 조선 문사들의 서양 학습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봉은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를 구분하여 천주교를 동양의 유불도교와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

㉓ 살펴보면 천주는 만물을 만드는 주재이니 우리 유가에서 말하는 귀신이다. 서양 사람은 유불도교를 숭상하지 않고 오직 천주를 높여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는 것이 모두 천주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높이고 받들

薄此處胡俗之意，見我國人衣冠文物，有艷慕之色。……然我國萬無接住之理，且久居我國，洞知虛失而還出，則亦有可慮。故我每推託，示以不可出來之意，而靳靳猶問路程，亦可悶也。”

30)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p.454.

기를 제왕처럼 하고, 아끼고 떠받들기를 부모처럼 한다.³¹⁾

이 글을 보면 천주교에 대한 이의봉의 인식이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지식과 그들의 과학기술 습득에 적극적이었던 이의봉은 그만큼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의식은 천주교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의봉의 시기에 와서 조선 문인들이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분명히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세 사람의 연행록에 나타나는 서구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각각이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상황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멀리하며 유가적 학문세계에 침잠해 있다가 연행 간 김창업과 31세와 28세의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연행 간 이기지와 이의봉이 서양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에게 새로운 문물은 강력한 흥미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그 흥미가 고스란히 이들의 연행록에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교에 대한 세 사람의 차이를 18세기 전반 서양 문물에 대한 접촉과 관심의 차이나 변화 양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연행록 기록 당시의 상황과 함께 연행 이전 개인의 경험과 학습이 연행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성향 차이도 연행록의 기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흔들림

31) 李義鳳, 『北轅錄』 4卷, 「1月 8日」, “按天主卽所謂造物主宰, 如吾儒所謂鬼神也. 西人不尙三教, 唯尊天主, 一飲一啄, 皆以爲天主之賜, 以尊奉之若帝王, 愛戴之如父母.”

과 함께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에서 볼 수 있는 형클어진 인식의 하나로 볼 수는 있을 듯하다.

IV. 하민에 대한 시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연행록은 점차 風俗志와 地理志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풍속과 지리, 인정과 세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추구하고, 연행 도중에 만난 모든 인물들을 연행록의 소재로 삼는다. 따라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연행록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수록된다. 이전 시기까지 중심이 되었던 문사나 관료를 넘어서 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이 수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에서 접하기 어려운 여인들의 모습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³²⁾ 이 과정에서 그 인물 묘사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 새롭고 기이한 풍정의 하나를 넘어서는 경우가 나온다.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에 수록된 인물 역시 대부분 문사나 관료들이었고, 이들과 주고받은 筆談과 詩文이 중심이 되지만, 간간이 보이는 평범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그 속에서 보이는 정서는 이 시기 연행자들이 이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런 모습을 ‘인간 평등’으로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의 시작’으로 볼 수는 있을 듯하다. 특히 그 관심이 연행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낮선 인물들이 아니라 馬頭, 引路, 較子扶囑, 日傘奉持, 左牽馬, 籠馬頭, 乾糧馬頭 같은 연행사절의 하층민에게까지 미쳤다면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2) 조선의 연행사절이 만난 여인과 그에 대한 묘사에 관해서는 김현미의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에 자세히 나와 있어 참고가 된다.

다.³³⁾

『老稼齋燕行日記』에는 연행사절의 하층민과 연행 도중 만난 민간의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서술이 나온다. 그런데 연행사절의 하층민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이들을 나무라거나 벌하는 것이고, 연행 도중 만난 민간의 인물들은 대체로 그들의 外面을 중심으로 한다. 胡漢의 구분과 美醜에 대한 평가, 奇異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바라보는 김창업의 관심을 보여주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물맛은 매우 나쁘나 아랫사람들은 모두 이 우물물을 먹는데 어떻게 참고 마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 말뚝이꾼과 역졸들 중에 노숙하던 자들이 거의 다 막사에 들어가 거처하지만, 그 중 두 무리는 아직도 노숙하고 있으니 보기에 가련하다.³⁴⁾

□ 길 위에서 똥을 줍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어깨에 2개의 광주리를 메거나 삼태기를 끌고 말 뒤를 쫓아다니면서 말이 똥을 싸면 바로 작은 삽으로 떠서 담았다. 또 길가에 있는 마른 풀뿌리도 흙이 붙은 채로 캐서 똥과 함께 쌓는데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 두면 모두 다 썩어서 거름이 된다. 무슨 일이든 힘들이고 부지런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³⁵⁾

33) 연행에 참여한 下民들에 대한 관심은 차광호의 「『熱河日記』를 통해 본 燕行에서의 賤出들의 역할과 의미(『문명교류연구』 제1집, 2009)」 이후 김영죽의 「18세기 연행록 자료 읽기(『문헌과 해석』 제72집, 태학사, 2015)」와 「연행, 그 이면의 풍경-18,19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房妓와 馬頭輩의 실상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제5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의 연구가 하루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34)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4卷, 「正月 5日」, “水味甚惡, 而下輩皆飲此井, 不知何以堪飲也. …… 刷馬駟人及驛卒輩露屯者, 幾盡爲簾屋入處, 而其中二隊尙露處, 見之可矜.”

㉑에서 김창업은 낫설고 물선 만 리 타향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조차 제대로 된 것을 마실 수 없고, 한 겨울 심한 모래바람이 불어오지만 노숙해야 하는 말몰이꾼과 역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김창업의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나온다. ㉒는 김창업이 북경으로 가는 도중 望海店 바깥 마을에서 본 것이다. 길을 가면서 마주한 똥무더기[堆糞]가 점점 많아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뚝을 주워 거름을 만드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지극히 낮은 사람이지만, 김창업은 이들의 행동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조용히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들을 바라보는 김창업의 시선에는 신분과 국적, 種族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老稼齋燕行日記』에는 청나라에서 만난 이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적지 않다. 민간의 장사치나 농부, 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람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에게 조선과 청나라의 구분은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행사절의 하층민에 대한 묘사는 그렇지 않다. 『老稼齋燕行日記』에 나오는 이들은 대체로 늘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고, 이들에 대한 처우도 야단과 나무람이 중심이다. ㉑에서 볼 수 있는 묘사를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김창업이 通官인 洪二哥와 나눈 대화에서 흥이가가 “조선 사람들은 종을 전혀 돌보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청나라에서는 음식이나 의복의 좋고 나쁨에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 주인이 말을 타면 종도 말을 탄다.”고

3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3卷, 「12月 19日」, “途上始有拾糞者. 或擔兩筐, 或挈一畚, 競隨馬後, 遇糞輒以小鍤取之. 又以路旁枯芟, 連土括取, 與糞同積, 累次移積, 皆成熟糞. 凡事精勤類如此.”

하자 김창업은 “조선의 종은 그 선조가 남의 재산을 도적질했던 자들이니, 어찌 그 주인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한다.³⁶⁾ 그래서인지 김창업이 묘사한 연행사절의 하층민과 청나라에서 접한 민간 인물들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인식들이 뒤섞여 있다.

『一菴燕記』에 나오는 연행사절의 하층민과 연행 도중 만난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老稼齋燕行日記』보다 더 자세하고 풍부하다.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나 묘사의 양상은 김창업과 대동소이하지만, 『一菴燕記』에는 이들에 대한 이기지의 관심과 애정이 보인다.

③ 날이 밝기 전 잠자리에서 요기를 하고, 먼동이 틀 무렵 출발하였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의복이 매우 얇아 일행 모두가 추위에 떨었다. 역졸들이 모닥불에 발을 쪼면서 새벽까지 한데에 앉아 있어서 몹시 불쌍해 보였다. …… 저녁 무렵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호인들은 모두 말을 타고 서둘러 돌아갔다. 장막은 다행히 비가 많이 새지 않았으나, 역졸들은 밖에 앉아 비에 젖은 채 밤을 지새워야 하니 그들에게는 몹시 견디기 힘든 밤이다.³⁷⁾

④ 여인들은 대부분 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관을 실은 배도 있었다. 뱃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또 오랫동안 배에서 지내느라 힘든 상황을 말해주었는데, 사정이 불쌍해 보였다.³⁸⁾

36)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4卷, 「正月 25日」, “朝鮮人全不恤奴僕。余曰何以言之。二哥曰此處則飲食甘苦, 衣服美惡, 奴與主無分, 以至其主騎馬, 奴亦騎馬, 而朝鮮豈曾如此乎。余曰朝鮮奴僕, 與此處有異, 蓋箕子立法, 令盜人財者, 世世爲其奴, 今之爲奴者, 其祖先皆嘗竊他財者也, 安得與其主同。”

37) 李器之, 『一菴燕記』 1卷, 「8月 19日」, “未明蓐食, 味爽發行。日氣猝寒, 衣服甚薄, 一行皆寒慄。驛子輩聚足於燕火, 露坐達曉, 甚可憐。……夕雨勢漸急, 胡人皆騎馬疾驅而歸。帳幕幸不甚漏, 而驛卒終夜露坐沾濕, 甚難堪夜。”

38) 李器之, 『一菴燕記』 2卷, 「9月 15日」, “女人多抱孩, 亦有載柩之舡。舡人款接,

㉔ 서쪽 기슭의 뱃사공이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작은 배를 저어서 왔다. 나를 맞이하여 그 배에 태우고 강물을 건너고 나서 뱃삿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대는 뱃삿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로 나를 건네준 것인가.” 하고 물으니, “뱃사공의 일이 사람을 건네주는 것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이겠는가.” 하고 답했다. 내가 화철을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 번 사양하다가 받았다.³⁹⁾

㉔은 연행사절이 九連城을 떠나 金石山으로 가려는 순간과 저녁 蕙秀山에서 여장을 풀며 맞이한 상황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뼉잠을 자 힘들어하는 역졸과 저녁부터 내리는 비를 맞으며 다시 한뼉잠을 자야하는 역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一菴燕記』 역시 연행사절의 하층민에 대한 묘사로 가장 많은 것이 그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이기지의 마음이 나타나며, 이들에 대한 개인적이지만 적극적인 대우가 보인다.

㉔은 이기지가 漁陽河 근처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 느낀 감정을 서술한 것이고, ㉔은 白河에서 자신을 건네준 뱃사공에게 느낀 감정을 서술한 것이다. ㉔에서는 그들의 고초에 대한 진한 안타까움을, 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뱃사공의 친절에, 이기지가 느낀 설명하기 어려운 고마움을 드러냈다. 연행 기간 김창업이 만난 사람보다 이기지가 만난 사람이 더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이기지의 묘사는 대부분 객관 서술을 중심으로 한다. 그것은 이기지의 만남 대부분이 일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㉔와 ㉔

且言久留難堪之狀, 情事可憐.”

39) 李器之, 『一菴燕記』 2卷, 「9月 17日」, “西岸舟子望余來, 却棹小舟而來. 邀上其舟, 渡河後, 亦不索價. 問你不索價, 緣何濟余. 答津缸職當濟人, 況他國人乎. 余以火金贈之, 累辭而受.”

처럼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기지 않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는데, 기록의 방향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이전까지의 연행록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이다.

『北轅錄』 역시 연행사절의 하층민과 연행 도중 만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묘사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北轅錄』에서는 연행사절의 하층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찾아보기 어렵다.

- [6] 털로 만든 적삼 한 벌씩을 해서고의 말몰이꾼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관향고와 운향고의 말몰이꾼 중에서 옷을 얇게 입은 자에게 주었으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일제히 감사하면서 “이 같은 덕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나운 바람 매서운 눈보라라도 어찌 솜옷을 끼입은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만약 간사한 일을 만들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효수하고 효수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소인들을 감동시키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⁴⁰⁾

[6]은 이의봉이 義州에 머물러 있을 때 말몰이꾼들에게 털옷을 나누어주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11월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먼 연행길을 떠나야 했던 이들에게 털옷을 준 것은 분명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한 행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에서 이의봉은 ‘소인들을 감동시키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고 했다. 말몰이꾼들에게 털옷을 준 것은 한겨울 연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말몰이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을 이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애정으로 치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의봉이 글 마지막 부분에 주목한

40) 李義鳳, 『北轅錄』 1卷, 「11月 23日」, “以毛褙子各一件, 分給海西庫駝人, 亦及於管運餉庫駝人之薄着者, 皆叩頭齊謝曰, 如許德政, 挽近所無. 雖簞風虐雪, 何羨乎挾纊. 如有作奸犯科者. 梟示梟示. 小人之易感如是.”

다면 이의봉이 이들을 조그만 친절과 이익에도 쉽게 움직이는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겼다고 볼 수도 있다.

[7] 길에는 12, 3살쯤 되어 보이는 한족 여자가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머리에서 울부짖어 말하기를, “노야께서 일 전만 주세요.” 하였다. 몹시 불쌍해 보였지만 줄 돈이 없어 주머니 속을 더듬어 청심환 한 알을 찾아 주면서 “시장에서 팔면 10전의 가치가 있다.”고 하자, 받고서 사례하였다.⁴¹⁾

[8] 한족 여인 서너 명이 길을 막고 돈을 구걸하였다. 역졸의 옷깃을 당기며 애처롭게 “노야. 돈을 주세요.”라고 소리쳤는데, 주지 않으면 수백 보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달려들기도 했다.⁴²⁾

[7]은 이의봉이 瀋陽을 지나 행궁을 구경하고 나온 뒤 길거리에서 마주한 여인의 모습이고, [8]은 沙河鋪, 閭家庄을 지나 李家庄에 와서 마주한 여인의 모습이다. 모두 한족이면서 여자 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北轅錄』에는 이의봉이 북경까지 가는 도중, 그리고 북경에서 머물며 만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걸인에 대한 묘사가 많고, 그 걸인의 모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北轅錄』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다른 연행록처럼 대부분 객관적 관찰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이의봉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평가한 청나라 민간의 인물들은 [7]과 [8]처럼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41) 李義鳳, 『北轅錄』 2卷, 「12月 9日」, “路有唐女, 年可十二三. 跪一膝, 叩頭啼呼於馬首曰, 老爺頒舍一錢. 見甚惻然, 而無錢可贈, 探囊中有一丸清, 出而付之曰, 售諸市, 可直十錢. 受而鳴謝.”

42) 李義鳳, 『北轅錄』 3卷, 「12月 24日」, “數三唐女, 遮路乞錢, 牽驛子之裾, 哀呼老爺舍錢, 不與則隨至數百步, 且叫且走.”

세 사람의 연행록에 나오는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淸人이나 漢人, 滿人을 가리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은 漢人이다. 김창업이나 이기지보다 이의봉의 경우 漢人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청나라의 다양한 민족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인식은 표면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청나라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청나라에 몰락한 漢人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淸人을 긍정적으로 보는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세 사람의 평가가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淸人과 漢人에 대한 세 사람의 평가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18세기 전반에 나타난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흔들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18세기 전반 자제군관 세 사람의 연행록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행록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연행 시기⁴³⁾나 연행 기간⁴⁴⁾, 나이⁴⁵⁾나 당색⁴⁶⁾으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연행 시기로

43) 김창업은 1712년 11월 3일부터 1713년 3월 30일까지, 이기지는 1720년 7월 27일부터 1721년 1월 7일까지, 이의봉은 1760년 11월 2일부터 1761년 4월 6일까지의 기록을 연행록에 남기고 있다.

44) 김창업은 4개월 28일, 이기지는 5개월 11일, 이의봉은 5개월 4일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45) 연행 당시 김창업은 55세, 이기지는 31세, 이의봉은 28세였다.

46) 김창업과 이기지는 노론, 이의봉은 소론으로 인정된다.

본다면 김창업과 이기지가, 연행 기간과 나이로 본다면 이기지와 이의봉이, 당색으로 본다면 김창업과 이기지가 더 가깝다. 그런데 이들의 연행록은 이런 조건들에 따른 유사성을 보이지 않는다. 청나라에 대한 기존 관념의 흔들림은 김창업에서 시작하여 이기지에게서 확대되지만, 다시 이의봉에서 보수적으로 회귀한다. 반면 서양에 대한 관심은 김창업에게서부터 이의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또 연행사절의 하층민이나 청나라에서 만난 민간의 인물들에 대한 시선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나타난다.

18세기 전반 자제군관 세 사람의 연행록에서 각각의 상황과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뒤섞임을 18세기가 시작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인식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세 사람의 연행록에서 볼 수 있는 뒤엎힌 인식들이 1893년 공식적으로 연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의 문제작으로 알려진 몇 편의 연행록을 제외하고는 연행록에 드러나는 작자의 인식은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18세기 전반만의 것이 아니라 이후 시기 연행록의 보편적인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층적이면서 개인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 연행록에서 적층된 것은 경험과 여정이고, 개별적인 것은 서술 기법과 묘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행이라는 행위에 참여하여 연행록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당대 관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양상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기만 하다면 연행록은 시대와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만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쌓여가는 경험과 여정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서술 기법으로 그려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뿐이라면 연행록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행록 연구가 보다 의미 있기 위해서는 쌓여가는 경험과 여정 속에 가려져 있는 시대적 의미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연행록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행록 전체에 대한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 연행록의 서술과 묘사 방법에 대한 분석과 그 속에 담긴 작자의 의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연행록의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의미의 확인을 통해 연행록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밝혀낼 수 있을 때 연행록 연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연행록 연구자들의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32~3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李器之, 『一庵燕記』, 『연행록선집보유』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李商鳳, 『北轅錄』, 『연행록선집보유』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한국고전번역원, 2001.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 이기지 저, 조윤희 외 옮김, 『일암연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 최소자 외, 『18세기 연행록과 중국 사회』, 혜안, 2007.
- 한국18세기학회, 『위대한 백년 18세기-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 태학사, 2007.
- 弘華文, 『燕行錄全編』 1~4,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 김영죽, 「18세기 연행록 자료 읽기」, 『문헌과 해석』 제72집, 태학사, 2015. pp.58-73.
- _____, 「연행, 그 이면의 풍경-18,19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房妓와 馬頭輩의 실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pp. 151-185.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pp.181-205.
- 박지선,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의 考察」, 『어문연구』 제23집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pp.197-215.
-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pp.445-486.
- 신효련, 「노가재 『연행일기』 국문본의 이본 고찰-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pp.43-65.
- 尹景喜, 「燕行과 子弟軍官」,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학술대회』 10, 한국어문학회 학술포럼, 2010. pp.186-194.
- 차광호, 「『熱河日記』를 통해 본 燕行에서의 賤出들의 역할과 의미」, 『문명교류연구』 제1집, 2009. pp.185-226.

Abstract

A Description of the Intricate Recognition and the Lowest Class of People in the Recor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Yoon, Jae-hwan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Three Sons's Records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a look at the tangle of consciousness in the Qing and West and human in particular the lowest class of people shows different aspects. Their perception was not easy to find in common with time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or perio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or age or fraction. The sway of the existing conception of Qing starts with Kim Changup and showed a magnification in Lee Giji, but returns conservatively from Lee Uibong again. On the other hand, interest in the West continues to expand from Kim Changup to Lee Uibong. Also, the conception of ordinary and lowest class of people in the Qing came to Lee Giji via Kim Changup, expanded the range of positivity, and came to Lee Uibong again and returned negatively.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ree people's Records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had mixed perceptions of various objects. It could be attributed to the mixed of the new perceptions that emerged at the start of the 18th century. However it was not easy to see that way. This was because their mixed perceptions continue until the end of the act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works, the author's perception was largely similar to Lee Uibong. In the Recor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then, the piled up was mostly experience and journey, and the individual was

nothing more than narrative technique and depiction.

But if so, the Recor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is not keeping up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While it may not be pointless to paint an understanding of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journey with a new narrative technique, the value of reading and the meaning of the Recor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will be reduced. In this regard, for the study to be more meaningful, for a time-for-round and across all ages approach should be taken with interest in each individual Record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Key word : 18th Century, Records of Joseon Dynasty Diplomats to Qing, Kim Changup's 『Nogajaeyeonhangilgi』, Lee Giji's 『Ilamyeongi』, Lee Uibong's 『Bukwonnok』

윤재환

소속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insemin@dankook.ac.kr

이 논문은 2019년 8월 20일 투고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9월 20일 게재 확정됨.
